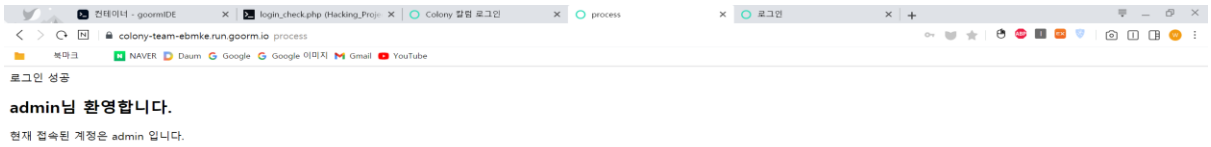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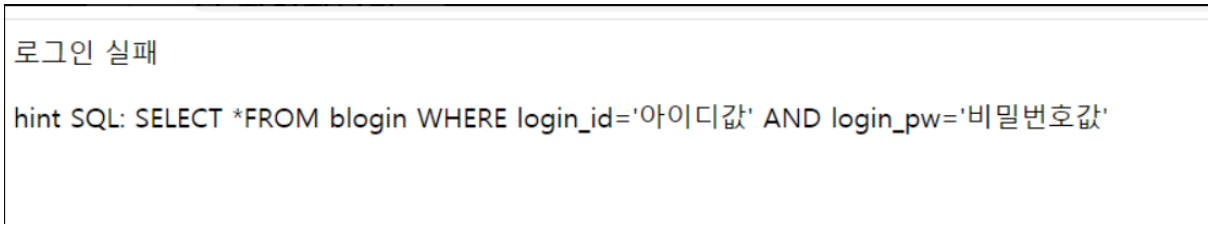
모의해킹 1회차 Writeup

Team_5(**김지선**,박준영,김채은)

✓ 3조에 id = admin, pw = 'or'1=1 으로 admin으로 로그인(준영님)



✓ 3조에 sql injection으로 테이블명 알아냄(지선)



✓ 3조 21,80,443 열린 포트 확인(지선)

느낀점/총평

-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고 프리스타일로 실습하다 보니 비효율적이었음
- 포트 스캔으로 열린 포트를 확인해서 뭘 할 수 있지?
- 해커는 코딩을 매우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나며

  기본기에 더욱 충실해야겠다 생각함
- 워게임에서의 실습은 일부러 취약하게 만들어져서

  실제 해킹과는 괴리감이 있음(feat. 화이트해커를 위한 웹해킹의 기술)

  Ex) 1 or 1'만 해도 너무 친절하게 답이 나옴..

  ->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을 위한 기본 틀로는 도움 됨
-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갈 길이 보안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

피드백

- 이 실습(1회차)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느낌
- 다음 실습(2회차) 때 목적: 다른 팀 DB 정보를 빼오는 것

  (∵) 다른 팀 DB정보 ≒ 실제 웹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정보 유출
- 미리 우리 웹에 실습해보기 -> 실습 준비(우리 웹)